

정보통신이라는 과수나무

장석권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기업의 경영활동, 사업전략, 시장성과,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하나의 생태계의 변화로 보려는 시각이 보편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원래 비유(analogy)는 논리적 바탕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 그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이지 대상 그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가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첫째 생존하는 생태계를 비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실존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둘째 비유는 시스템 전체의 기능구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분석대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holistic)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생태계라는 용어가 특히 벤처산업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벤처 생태계의 변화니, 벤처 생태계의 육성이니, 벤처 생태계의 생존조건이니 하는 말들이 그것이다. 벤처산업을 이렇게 생태계에 비유하여 그 변화의 양상과 조건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생태계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슈와 조건, 그리고 현상의 변화에 대한 통찰은 실제로 벤처산업의 동태적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과정을 생각하면서, 생태계를 떠올린 것은 생태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양상과 그 전개 과정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조건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태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작은 식물이나 나무, 보잘 것 없는 동물,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의미있고 유용한 생존법칙과 조건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생태계 비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슈는 생존의 이슈이다. 생존은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생물의 궁극적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이러한 변화 과정은 흡사 한정된 터에 자리잡은 다양한 과수나무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접목과 교배, 그리고 신품종으로의 대체를 시도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과수의 성장환경과 여건을 결정하는 과수원의 주인은 국내 정보통신환경을 결정하는 정책기관이나 정부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이다. 다른 목표로서 번성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특정 동식물의 일시적 번성이 궁극적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시 최선의 목표는 생존이다. 이는 흡사 기업경영에 있어서 최대의 전략목표가 경쟁우위의 지속성(sustainability) 확보, 즉 기업수명의 연장에 있음과 유사하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은 무선인터넷, IMT-2000, 초고속정보통신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개발과 이를 향한 정보통신기업의 변신이다. 혹자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매정한 생태계의 생존법칙에 의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성공적 진출 여부에 목숨을 걸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이러한 변화 과정은 흡사 한정된 터에 자리잡은 다양한 과수나무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접목과 교배, 그리고 신품종으로의 대체를 시도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과수의 성장환경과 여건을 결정하는 과수원의 주인은 국내 정보통신환경을 결정하는 정책기관이나 정부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에 있어서 과수의 생존조건은 다양하다. 첫째 토양에 유기질이 풍성해야 하고, 둘째 햇볕이 잘 들어야 하며, 셋째 지속적인 수분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과수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성장이 상호 저해되어서는 안되며, 과수로부터의 결실은 과수의 성장을 위한 퇴비의 공급이나 신품종의 이식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과수의 생태계는 적정하게 식수된 과수 묘목들로부터 출발하여, 단계적인 성장, 성숙, 휴식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변화한다. 그 성장 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 과정을 잘 이루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나, 성장조건이 불충분하거나, 어느 순간 외부의 충격에 의해 선순환의 고리가 깨지면, 그 생태계는 일순간 붕괴되고 만다.

정보통신 기업성장의 선순환 과정은 이러한 과수 생태계의 순환 과정과 유사하다. 토양은 연구개발환경이며 토양 속의 유기질과 무기질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다. 이들 연구개발의 결과는 토양 속의 수분을 타고 과수줄기를 따라 올라, 햇볕과 공기와 함께 잎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의 재료가 된다.

식물 생태계에 있어서 광합성은 정보통신기업의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응되는데, 생태계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창조의 과정이다. 광합성의 결실이 과수열매에 축적되어 새로운 토양에서 새로운 씨앗을 틔우듯, 서비스 생산의 결실은 신규사업조직에 축적되어 새로운 사업을 틔우는 모태가 된다.

성장활동이 정지된 겨울을 지나, 토양이 제 역할을 시작할 초봄에 이르면, 식물의 뿌리는 토양 속의 수분을 모아서 나무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흡사 연구개발이 기술주도(technology push)로 서비스 생



과수 생태계의 보존과 육성이 매우 치밀한 계획과 정성스러운 관리, 그리고 성장원리의 존중을 필요로 하듯, 정보통신 생태계의 보존과 육성은 과수 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줌으로써 각각의 과수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비옥한 토양, 충분한 물,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입지를 제공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산을 밀어붙이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완전한 봄이 오고, 나무에 잎이 점차 자리를 잡아 서비스 생산의 광합성 활동을 시작하면, 풍성하게 달린 나뭇잎들은 뿌리를 통해 토양속의 각종 유기물과 수분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즉, 경이로운, 창의적 생산공정이 가동하기 시작하면 생태계의 순환은 수요 주도(demand pull)의 원리로 전환되어, 여름의 왕성한 생산단계로 전환된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과 과실은 떨어져 토양 속으로 다시 환원되며, 새로운 생명의 씨앗은 내년 봄의 새로운 성장을 준비한다.

과수의 생태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다. 생태계에서 햇볕과 물이 중요하듯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기반과 정보채널은 정보통신 생태계의 핵심적 성장조건이다.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은 기술과 시장 사이에 오가는 정보이며, 과수 내의 수공, 즉 관로는 연구개발 네트워크, 기술교류의 장, 기술거래시장,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 등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정보채널이다.

정보통신기업 내 연구개발부서와 시장개발부서 간 잘 갖추어진 정보교환채널의 구성은 시장 지향의 서비스 개발과 연구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개발의 선순환을 강화시킨다.

과수 생태계의 보존과 육성이 매우 치밀한 계획과 정성스러운 관리, 그리고 성장원리의 존중을 필요로 하듯, 정보통신 생태계의 보존과 육성은 과수 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줌으로써 각각의 과수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비옥한 토양, 충분한 물,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입지를 제공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아직 묘목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과수나 이제 막 이식한 과수로부터 무리하게 결실을 거두려는 행위나, 성장원리에 반하여 과수의 형상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행위는 생태계의 생장에 가장 유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묘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IMT-2000,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비유가 아닌가 싶다.